

## 선교매트릭스

경기서부 백지은

사실 이 책의 1장부터 읽으면서 막힘이 좀 있었다.  
(내가 TMTC에 지원한 것 자체가 선교에 대한 소망함이 있던 것이 아니라 더욱 그랬겠지만)

우선 첫 번째 막힘은, ‘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?’

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동의.

두 번째 막힘은 ‘선교가 교회보다 우선한다고?’

이것은 교회를 너무 좁은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닌지?

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,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본다면 선교가 그리스도의 몸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웠다.

더군다나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이 나에게 주어진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자가 모든 선교를 ‘해외 선교’에만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것, 그리고 지금 이 곳에서의 선교는 무언가 소극적인 선교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 온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 부딪힘이 있었다.

그러나 이 불편함과 오해는 TMTC에서 이영 선교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해소되었다.

이영 선교사님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고 구원받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에 빛진 자라고 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하셨다.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구원 받은 것이고,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다.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, 해외에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빛진 자이다.

교회에는 모이는 사명과 흠어지는 사명이 모두 주어져있다. 이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도 필요하지만, 또 누군가는 파송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.

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.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에 나갈 수는 없지만, 모든 사람은 해외 선교에 대한 지원과 기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. 내가 아무리 이 곳을 선교지로 삼고 있다고 해도 이 곳만이 나의 선교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나 역시 해외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또 이 책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 어떤 고충이 있고, 어떤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.

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다.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하는 방법의 하나가 선교사가 스스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선교지에 이미 존재하는 단체나 교회에 들어가 그 단체의 지도력 아래에서 사역하는 것이다. 예수님도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셨다. 선교사가 내일 당장 선교지를 떠난다 하더라도 현지인이 이양을 받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해야 한다.

한국교회는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를 해야 한다.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다.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내놓는 자가 선교사다.

간사로서 나 역시 마찬가지다. 말씀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.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성육신 선교의 기초다.